



‘와인 초심자를 위한 트라피체의 최고 가성비 와인!’

아스티카 샤르도네

Astica Chardonnay

지역	아르헨티나 > 멘도자		
포도품종	샤르도네 100%		
알코올	12.5%	용량	750ml
테이스팅 노트	밝은 노란 컬러의 와인으로 열대 과일향이 두드러지는 프루티함이 특징이다. 입 안에서는 기분좋은 과실향이 오래 지속되는 와인이다.		
페어링 TIP	흰육류/ 익힌 해산물/ 채소/ 익힌 채소/ 부드러운 치즈		



#아르헨티나/#DRY/#WHITE

제품설명



아스티카는 아르헨티나 원주민어로 꽃을 뜻한다. 손으로 수확한 선별된 포도들만 사용하는 품격있는 데일리 와인으로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는 풍부한 과일향이 특징이다. 부드럽고 가볍게 마시기에 좋으며 음식과의 매칭에도 어려움이 없다.

와이너리



안데스 산기슭의 멘도자에 위치한 트라피체는 1883년에 설립된 이후 내수/수출 물량 1위로서 명실공히 아르헨티나 대표 와이너리로 인정받았다.

120여 년의 긴 역사 속에서도 개척정신과 혁신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온 트라피체는 세계적인 와인 컨설턴트인 미셸 롤랑과 합작으로 ‘이스까이’란 제품을 만들어 내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아르헨티나 와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또한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와인 품평회인 IWSC에서 올해의 아르헨티나 와이너리 (Argentina Wine Producer of the Year) 트로피를 4회 수상하였으며 (2004, 2006, 2011, 2012),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나 임팩트 매거진의 “Hot Brand”를 수상하면서 품질과 대중성 모든 부분에서 그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말벡' 열풍의 선도자로서, Wine Spectator Top 100, Wine Enthusiast Top 100에 선정된 '트라피체 싱글빈야드 말벡'부터 1년 동안 전 세계 250만 병이 팔린 '오크캐스크 말벡'과 같은 대중적 와인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아르헨티나 와인'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